

# 행복한 노년기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 www.consult.or.kr

## 노년부부 둘만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최근 10여년 사이에 가족과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 발효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족법 개정이나 가정폭력 방지법, 남녀차별 금지법, 성폭력 방지법 신설 등이 그것이다. 또한 가족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며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가까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족문제 중의 하나가 황혼이혼이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 10여년 전부터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이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수년간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노인상담단체의 통계에서도 황혼이혼과 관련한 상담이 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년기 후반이나 노년기에 들면 자녀들이 다 성장하고 독립해 나간 '빈 등우리'에 부부 두사람이 다시 남게 지게 된다. 이들의 상호적응과 결혼 만족도는 어떤 상태인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자녀의 분가로 인해 다시 둘이 남게 된 노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전 단계인 자녀 양육기에 비해 다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결혼만족도 감소 추세가 계속 이어져 더 이상 결혼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불만족과 여러가지 어려움이 누적된 경우도 있다. 황혼이혼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다.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황혼이혼을 요구하는 쪽은 대부분 아내다. 지난 20~30년 이상 한 지붕 아래에서 한 솥밥을 먹고 살아온 노부부가 한 팀을 이루어서 자식을 다키워 내보내고 이제와서 갈라서고자 하는 것은 왜인가?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남성우월적인 가부장 의식과 태도가 문제가 된다. 자신의 배우자를 동등한 인격자로서, 인생의 동반자로 대해주고 부부 사이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해결의 실마리이기도 하다.

부부싸움이나 황혼이혼 문제가 아니더라도 노령에 따른 다른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가? 가족관계 특히 부부관계에 만족한 노인들이 전반적인 인생만족도도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두고 싶다.



자신의 배우자를 동등한 인격자로서, 인생의 동반자로 대해주고  
부부 사이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가부장적 권위의식 털고 때론 "사랑한다" 표현하세요.

정수 할머니(65세)는 노인정에 나가려는 정수 할아버지(68세)의 등뒤로 오늘도 변함없이 "조심해서 다녀 오세요. 점심은 소화가 잘 되는 것으로 잡수시고요."라고 말을 건넨다. 할아버지가 혹시 노인정 가는 길에 미끄러지지 않는을까 걱정도 되고, 지난 번 냉면 잡수시고 소화가 안돼 며칠동안이나 고생한 일도 있어 매일 등 뒤에 대고 얘기를 늘어놓는 게 버릇처럼 돼 버렸다.

그럴 때마다 멀리 작아져가는 할아버지 뒷모습을 보며 정수 할머니는 한숨을 내신다. 서로 눈높이를 맞추어 마주보며 다정하게 손을 맞붙잡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럼, 다녀오리다."라든지 "응, 그리 할테니 걱정 마시오."라든지, 할아버지가 뭔가 반응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정수 할머니에게는 꿈 속에서나 그려보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40여년을 함께 살아온 긴여정 속에서 다정한 말 한마디 제대로 들어본 적 없는 할머니는 늘상 가슴 속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을 털어 버리지 못한다. "에그 막대기같은 영감 무뚝뚝하고 냉정하긴..." 혼자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쉬움을 가슴에 묻고 살아간다.

시집살이애다 애들 키우느라 허둥지둥대며 살아온 정수 할머니. 자녀들을 다 성장시켜 어느 정도의 독립적 생활을 하도록 분가시킨 뒤에야 신혼 초부터 그려왔던 '부부'만의 생활이 시작됐다. 하지만 '부부'만 살면 이럴것이다. 라는 기대가 와르르 가슴에 무너지는 소리, 허탈감 외로움에 정수 할머니는 소주라도 한 잔 먹어야 잠을 이루게 되었다. 우울증의 초기 증상인 듯 하다.

정수 할머니, 할아버지의 생활은 우리의 노부부들에게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가부장적 의식 속에 길들여진 할아버지의 묵묵한 표정은 남편으로서의 권위이고, 아내로서의 일방적 봉사와 헌신은 바로 아내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다. 정수할아버지의 무뚝뚝함과 침묵은 곧 아내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점을. 또한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애뜻한 사랑의 속삭임을 가슴에 간직하고 싶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알아주었으면 한다. **이영희**